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소식

제 5 호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승택 편집인 이재근 주소 제주시 중앙로14길 15-6 | 064)727-0617 | www.jejuregen.org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중한 제주의 자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지면안내

02~03 원도심 인터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04~09
원도심 탐구

10~11 도시재생의 이해
문화·예술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12~13 원도심 관찰일기
제주북초등학교

14~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학생들과 함께 성장한 인천문화당 이인식 대표



1970년대 한짓골 인천문화당 모습

어렸을 때 동네 문방구 앞에 쫓그리고 앉아 100원 넣고 드르륵 돌려서 뽑던 뽑기부터 유난히 맛있었던 불량식품, 용돈 모아 샀던 학용품부터 장난감까지... 누구나 문방구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씩은 있지 싶다.

1970년대 제주시 중앙로 일대는 교복 차림의 남녀학생들로 넘쳐났다. 신성여중·고등학교, 제주중학교, 오현고등학교, 남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등이 밀집했던 탓이다. 그 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르던 곳이 있었다. 바로 '인천문화당'이다. 1969년 한짓골에서 문을 연 인천문화당은 그 시절 학생들과 근 50여 년을 함께 해온 추억의 장소이자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 봤을 만한 제주도 대표 문방구이다.

이제 동네 문방구들은 대형 마트와 전문 문구 쇼핑몰의 등장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초등학교 앞에서나 얼마 남지 않은 문방구들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문화당 이인식 대표를 만나보았다.

Q. 문구점 이름을 왜 인천문화당이라고 했나요?

A.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인천에 있는 '문화당'이라는 문구점에서 점원으로 일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주에 친구를 만나러 가셨다가 한 일주일 제주에서 지냈죠. 볼펜을 사러 문구점에 갔는데 가격이 육지보다 3배 정도는 비쌌대요. 아무래도 물류비 때문이겠죠.

아버지가 '여기서 2배만 더 받아도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물건을 좀 보내라고 하고는 바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한짓골 만수당 약국 밑에서 작게 간판도 없이 시작했어요. 문구점, 만화방을 같이 하면서 떡볶이도 팔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인천에서 일했던 곳이 문화당이니까 우리가게 이름을 '인천 문화당'이라고 했죠.

Q. 갑자기 제주에서 살게 되었는데 힘든 일은 없었는지, 정착기 이야기 좀 해주세요.

A.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셨대요.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생후 8개월쯤 제주로 와서 살았으니까 별 어려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인 배척이 너무 심했대요. 심지어는 돌도 던지고 가고 자다가 집 유리창이 깨진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도 힘들니까 한 3년 정도 학생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이제는 인천문화당이 그냥 제주에 있는 만물상 상호명이 된 것 같아요.



현재 삼도2동 인천문화당 모습

Q. 인천문화당이 50년 가까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A. 부모님은 판생각 안 하시고 장사만 하셨어요. 예전에는 주 고객이 학생들이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커서도 여전히 찾아오고 아이들, 손자들 데리고 와서 아직도 아버지 안부를 물으세요.

학교 다닐 때 아저씨가 돈도 없는데 학용품도 공짜로 주시고,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안부도 물으면서 잘 지냈다고 하는 단골들이 많아요. 손님들이랑 늘 애정 있게 지냈나 봐요.

한 10년 전인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던 사람이 그때 훔친 물건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경찰서로 보냈어요. 저희 가게에서도 노트 2권이랑 뭐 이것저것 훔쳤던 게 있다고 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물건을 훔쳤던 상점이 6~7군데 됐었는데 장사하고 있는 데가 우리 가게뿐이었네요.

Q. 인천문화당 중앙로 본점이 위치해있는 이 건물도 상징성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장사하게 되신 건가요?

A. 한짓골에서만 4번 옮기면서 장사했었는데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앞 인천문화당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1983년에 지금 건물로 옮겼어요. 여기가 신성여중 별관이었어요. 9개 반이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1979년에 신성여중이 이전하고 비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건물 처분이 안돼서 아버지가 인수해서 1층은 문구점으로 쓰고 2층에서 살았어요. 가게 규모가 커졌죠. 그 당시에 학교들이 이전하기 시작했지만 중앙로, 칠성로가 활성화됐었고 제주대 병원도 있어서 장사가 잘됐어요.

제주대 병원이 이전하면서 타격이 컸어요. 전날까지도 1,000명 이상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심리

적으로 위축되더라고요. 이 길에 식당들도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중앙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해요. 빈 차들만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도점 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Q. 제주시 원도심이 과거에 비해 상권이 쇠퇴되었는데,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나요?

A. 이도점 오픈했을 때 본점 없어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건물 매입하겠다는 중국인, 육지 사람들도 있었고요.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였고 신제주나 화북처럼 신도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다 보니 굳이 원도심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차도 힘들고, 원도심을 멀게 느끼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중앙로 본점과 이도점도 찾아오는 손님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앙로 본점은 나이 드신 단골분들이 주로 와요. 이도점 갔다가도 문구점 같지가 않다고 이쪽으로 오세요. 본점도 리

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30년 단골인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기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친숙하고, 특유의 문구점 냄새가 있다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손님은 이도점이 많지만 오랜 세월 찾아주는 단골들이 아직 있으니깐 이렇게 유지하려고 해요. 이제는 문구점 개념을 넘어서 잡화점 기능도 하면서 온라인 시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제주시 원도심에서 인천문화당이 어떤 장소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A. 많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 추억의 장소가 되길 바라고 계속 사람들 직접 만나면서 장사하고 싶어요. 몇십 년 외국생활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온 손님이 동네가 다 변해서 아쉬웠는데 인천문화당은 그대로 있으니깐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본점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1970년대 인천문화당 학생들 모습

고단한 마음 어루만지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병원 ‘예술공간 이아’ 새 출발!



2017년 5월 13일, 예술공간 '이아' 개관식 모습



옛 제주대병원이 복합문화예술공간 '이아(貳衛)'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약 2년여간의 준비 끝에 지난 5월 13일, 옛 제주대병원 지하 1층과 지상 3, 4층을 리모델링한 '예술공간 이아'가 문을 열었다.

'이아'라는 명칭은 조성된 공간이 조선시대 제주목 이아터라는 점에 착안해 붙여졌다. 이아는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는 일종의 지방자치기관으로 판관 집무처인 '찰미헌'을 중심으로 한 행정관청이며 옛 제주대 병원 터 전체에 해당한다. 이번에 탈바꿈한 예술공간 이아는 예술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활동 활성화, 예술가들의 실험과 창작이 자유롭게 벌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던 행정기관이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의 고단함을 풀어주고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도지

사는 "조선시대 '이아'라는 역사적 장소가 제주 원도심의 문화예술의 센터로 재탄생했다"며 "제주의 역사와 자연과 문화를 합쳐서 고급스럽고 자부심 넘치는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부터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진행

예술공간 이아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1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부터 60세 이상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내 인생, 이야기한 귀퉁이 ▲제주의 그물기술을 예술로 ▲업사이클링 음악단 ▲바다에서 봉가온 보물 ▲행복푸리 몸짓학교 ▲낭퐁이아: 함께 하는 식탁까지 모두 6개 프로그램이다.

'내 인생, 이야기한 귀퉁이'는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그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

보고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낸다.

'제주의 그물기술을 예술로'는 화분걸이, 해먹 등 제주의 전통적인 제작 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 해 실생활에 유용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업사이클링 음악단'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의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바다에서 봉가온 보물'은 제주 바다와 쓰레기 문제를 풀어보는 내용이다.

'행복푸리 몸짓학교'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몸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놀이프로그램이다.

'낭퐁이아: 함께 하는 식탁'은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매주 다양한 강사들과 요리에 얹힌 이야기를 나눈다.

예술공간 이아 담당자는 "이아가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도심 골목길에서 만난 소소한 이야기

소규모 플리마켓 ‘관덕장’

지난 5월 28일 일요일 오후, 조용했던 향사당 뒤 골목길이 시끌벅적했다.

원도심 골목에 오손도손 모여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관덕로 주변 젊은 상인들이 소규모 플리마켓을 열고 있었다.

이름하여 ‘관덕장’. 비스트로 더반을 필두로 소수의 셀러들이 참여하여 열리는 소규모 플리마켓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히든 플리마켓 이랄까?

이날은 쌀다방, 미래책방, 한일슈퍼, 반지공방 반땡, 지구방문자, 카페준비중 등 10팀 정도의 셀러가 수공예품, 소장품 등 관덕장에서만 볼 수 있는 레어템을 팔고 있었다. 셀러들은 향사당 뒷골목 상인과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일반 참여자들이었다.

정겨우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골목에는 정취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벨롱장, 야문딱털장 등 제주도는 이미 여러 플리마켓들이 성행하고 있다.

제주의 플리마켓은 단순한 시장의 개념이 아니다. 셀러로 참여하거나 놀러 오거나 제주에 새로 정착한 주민들까지 단숨에 모이는 사교의 장이다. SNS를 통해 결집하고 소소한 이벤트를 지속하며 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관덕장은 규모가 큰 플리마켓은 아니지만 다시 오기에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좁은 골목에서 열리는 소소한 장에서 만나는 유쾌한 원도심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관덕장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늦은 오후에 열릴 예정이고

www.facebook.com/bistrothebarn/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글·사진 이금재(도시재생기자단)



향사당 뒤 골목에서 열린 관덕장 모습



감성 충만한 원도심의 전시 ‘무대륙 소년’

나무, 동물, 가족 등 순수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그리며 소탈함 속에서 예술적 이상을 추구하는 강준석 작가의 그림 드로잉 전시 ‘무대륙 소년’. 심플하게 표현한 다양한 드로잉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화가 강준석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술적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5월 3일 ~ 7월 16일, 15:00~19:00

위치 비아아트 (제주시 관덕로15길 6)

문의 064-702-7022

Brandnew 원도심

우유부단 크림공작소 & 올리브영 제주탐동점



우유부단의 유기농 우유와 우유 아이스크림

일억조 식당을 아시나요?

과거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고깃집이었던 자리에 올레꾼들의 쉼터인 간세라운지가 자리 잡았고 지금은 우유부단의 자매점인 '우유부단 크림공작소'(이하 크림공작소)와 함께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크림공작소'는 성 이시돌 목장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우유를 이용한 밀크티와 우유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원도심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성 이시돌 목장의 우유부단이 중산간의 유기농 목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면 '크림공작소'는 제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다. 원도심이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한다고 말한 '크림공작소'의 김종현 대표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과 그 지역의 사회·경제·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도심의 허브

지금은 중앙로가 과거 일억조 식당이 있을 시절의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없다. 그만큼 사람이 없다. 원도심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와야 한다. '크림공작소'가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는 김 대표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글·사진 김지현(도시재생기자단)

탐동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 중

아라리오뮤지엄 맞은편에 올리브영 제주탐동점이 들어섰다. 올리브영 제주탐동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선보이는 첫 사회 공헌 특화 매장이다. 헬스앤뷰티스토어에서 제주 아티스트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문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최근 탐동은 원도심의 문화예술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며 현대 미술 전시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 탐동점 1층은 제주 로컬 매거진

'리얼 제주인(iiin)'을 만드는 콘텐츠그룹 재주상회와 청년 창작자, 여행자들을 위해 마련한 최초의 복합문화공간 '제주 인스토어'이다.

제주 인스토어에서는 제주를 주제로 한 아티스트들의 예술작품 전시와 그들이 진행하는 드로잉, 사운드스케이프 등 문화 강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제주 인스토어 옆에는 제주에서 제작한 엽서, 스노우볼, 손수건 등 다양한 기념품으로 꾸며진 '제주특화상품존'이 마련되어 여행객의 발길을 잡는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제주 인스토어 등 제주콘텐츠 체험 공간을 배치하고 지역 특화 상품 브랜드에 과감히 자리를 내줬다"면서 "1층에서는 제주 본연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2층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트렌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리브영은 제주탐동점처럼 지역 상생 플랫폼 매장을 추후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지현(도시재생기자단)



올리브영 제주탐동점 1층에 위치한 제주 인스토어 모습

건입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옆 골목에 위치한 건입박물관. 원도심의 골목을 구석구석 걷지 않는다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은 제주시와 건입동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산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조성한 곳이다.

건입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용품과 어구, 농기구 등을 자발적으로 기증하면서 각종 유물들이 130여 점이나 전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삶의 터전인 건입동 주민들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제주시 산지로 5-14



아라리오뮤지엄 동문모텔2

옛 제주 구도심 최대 변화가였던 동문시장과 산지천 인근의 모텔을 인수해서 탄생한 제주 아라리오뮤지엄. 원도심을 거닐다 보면 빨간색의 건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주 아라리오뮤지엄은 탐동시네마와 마이크샵, 동문모텔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긴 준비 끝에 선보인 제주 아라리오뮤지엄은 개성이 넘치는 현대미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개발에 밀려 쇠퇴했던 원도심을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되살리려는 그 만의 철학과 꿈을 엿볼 수 있다.

☞ 제주시 산지로 23



제주물사랑홍보관

제주 물사랑 홍보관은 제주지역의 상수도 역사를 알 수 있고 다양한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물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부터 제주 용천수의 가치와 제주지역의 생활용수 등 물 자원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준다. 다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만큼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지 않고, 가볍게 산책하며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 제주시 산지로 5-16



김만덕기념관&객주

거상 김만덕은 조선시대 영조 15년에 제주도의 가난한 집 안에서 막내로 출생했다. 25살이 되던 해에 지금의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북에 객주를 차리면서 거상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김만덕은 정조시대에 많은 양곡을 사들여서 제주 백성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고 한다.

김만덕의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와 나눔을 이해하도록 조성해 놓은 공간이다. 제주 공항에서도 가깝고 나눔의 철학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해도 좋을 듯하다.



김만덕 기념관 인근에는 정겨운 제주도 초가집으로 재현한 김만덕 객주도 있으니 함께 다녀오면 좋다. 특히 김만덕 객주에서 먹는 순대와 해물파전에는 막걸리 한 잔이 빠질 수 없다. 빈대떡 등 다양한 먹거리가 푸짐하기 때문에 지갑은 가볍게 뱃속은 무겁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 제주시 산지로 7, 제주시 임항로 68

아이와 함께 떠나는 원도심 나들이

원도심
제대로 즐기려면
어디 가야할까?

제주여행을 꿈꾸고 있거나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면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볼 수 있는 원도심으로 가벼운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누구나 지나치기 쉬운 원도심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 떠나는 색(色)다른 여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자가 원도심으로 떠나면 좋을 나들이 명소를 소개한다.

글·사진 전재현(도시재생기자단)



제주항

제주항은 원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잔잔한 제주항에 비친 노을을 바라본다면 절로 감성에 젖게 된다. 인근에 제주국제여객선터미널을 드나드는 멋진 크루즈도 감상할 수 있으니, 머리가 복잡할 때 다녀와 보자.

“총각, 연애하고 가~”

원도심의 사생활_산지천 뒷골목



추운 겨울, 떨어지는 기온과 반비례하여 증가하는 몸무게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신지? 그렇다. 겨울에는 무릇 따뜻한 전기장판에 드러누워 꿀을 ‘콘테나’째로 까먹는 것이 인류의 본능이자 계절의 의무이다. 지난 겨울의 어느 날, 오랜 늙는 생활로 (더욱) 뻥뻥해진 불살을 우연히 발견한 나는 걱정스런 마음에 허겁지겁 후드 점퍼만 서둘러 뒤집어쓰고 운동을 나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걷지 않으면 죽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걷는데 골목 어둠속에서 누군가 스-윙 나와 내 팔을 잡는다.

“총각, 연애하고 가~”

“으악!!!” 깜짝 놀라 뒷걸음치는데 “아 여자구나~” 하며 다시 스윙 사라지는 아주머니.

뭐야 이거!! 뭔가……. 당한 기분인데?(네…….저는 총각이 아닙니다만…….) 찻잔한 마음을 안고 지난 겨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운동을 마쳤다.

산지천 거리의 비밀

나중에 주변에 물으니 ‘산지천 거리’는 원래 꽤 유명했단다. ‘남자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쉽’강조하시고, ‘차로 지나가는데 앞에서 세우더라(액션 배우인 줄)’, ‘교복 입은 남학생에게도 말을 붙이시는 사교성 충만하신 분들이다’라는 말들이 내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분명 내가 어릴 땐 음악 분수가 나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뛰어놀던 데였는데 원래 이런 곳이었나…….왠지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다.

공무원이셨던 엄마께도 여쭙보니 본인께서 공무원이던 시절 그렇게 단속을 다

니셨다고 한다. “단속하고 단속해도 어디선가 또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기사를 잠깐 찾아보니 이곳 산지천의 성매매촌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고 한다. 과거 항구 주변을 중심으로 집성촌이 형성된 이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 제정 등으로 규모가 작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영업하는 업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산지천이라는 원도심의 큰 물줄기 바로 옆에서 ‘팔 수 없는 것’을 파는 이들과 ‘살 수 없는 것을 사는’ 이들. 최근 들어 제주도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보편적 인식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하니 점차 나아지기를 바라야지.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제주에 ‘환상의 섬’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 ‘환상’은 누구의 환상인지. 단지 아름답게만 보려는 인식 때문에 제주의 다른 단면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고 되돌아보게 된다. 원도심은 제주의 무구한 역사가 함께하는 동네다. 물론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그리고 모든 연애가 그렇듯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 바로 산지천의 성매매 골목이 그렇고 그동안 쉬쉬했던 제주의 많은 악습들이 그렇다. 이제 그만 훌훌 보내주고 더 좋은 만남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 ‘원래 그렇단’말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아질 거야’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다.

아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며 그때 나를 붙잡았던 아주머니께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 “모든 연애는 셀프랍니다!”

밤에 ‘제주목 관아’ 가봤니?

7월부터 9월까지 야간특별 개장

작년 10월에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 걸쳐 디자이너 아시아페어라는 국제 문화 교류 행사가 열렸다.

아트 마켓과 오픈 스테이지 공연, 뉴미디어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관덕정 미디어 파사드였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디스플레이 기법이다.

평소 낮에만 방문하는 곳으로 생각했던 이곳이 밤이 되니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내기 시작했다.

사실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관덕정을 배경으로 현대 기술이 만나는 신선한 장면

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달빛 아래 제주목 관아의 장면은 진한 여운이 더해졌다.

제주목 관아는 여름 시즌에 야간특별개장을 한다.

침체된 원도심 지역경제를 살리고 야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야간에도 문을 열었다. 고즈넉한 야경을 돋보이게 할 조명도 밝히고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해도 국악, 무용, 음악동아리 등의 공연으로 꾸며질 ‘작은 음악회’와 더불어 야간 기행, 야간 장터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글·사진 이금재(도시재생기자단)

책 나와라 뚝딱! ‘도깨비책방’

제주도서점조합,
공연 관람권 책으로 무료 교환



지난 4월 26일, 제주시 중앙로 메가박스 입구에 ‘도깨비책방’이 떴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차려

진 도깨비책방은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유료 관람 영수증이나 지역서점의 도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책으로 바꿔주는 행사다. 올해 2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의 7개 문화예술시설에서 진행된 도깨비책방에 3만7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이어 4월에는 서울, 수원, 울산, 청주, 목포와 제주시 원도심까지 도깨비 책방이 마련되어 4월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었다.

도깨비책방에 비치된 도서는 국내 작가가 최근 5년 이내 창작 또는 집필한 저서 100여 종 2,500권으로 사흘간 2,290권이 교환되었고 남은 서적들은 제주도 외곽지 동네서점 13군데에 무료로 배포된다.

도깨비책방은 제주도서점조합의 25개 서점 직원들이 운영을 도왔으며 활동비를 모아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교환권을 발행하여 교육청에 전달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주도서점조합 고봉석 조합장은 “제주도는 관광객 위주의 문화행사는 많은데 정작 도민의 정서를 위한 문화행사가 거의 없었다. 도민의 정서를 위로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이어 가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화·예술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LHI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수석연구원

도시재생사업 개요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구산업의 쇠퇴와 주거지로서의 역할 박탈, 도심 공동화 심화 등의 문제로 인한 구도심의 쇠퇴와 침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재생시키고자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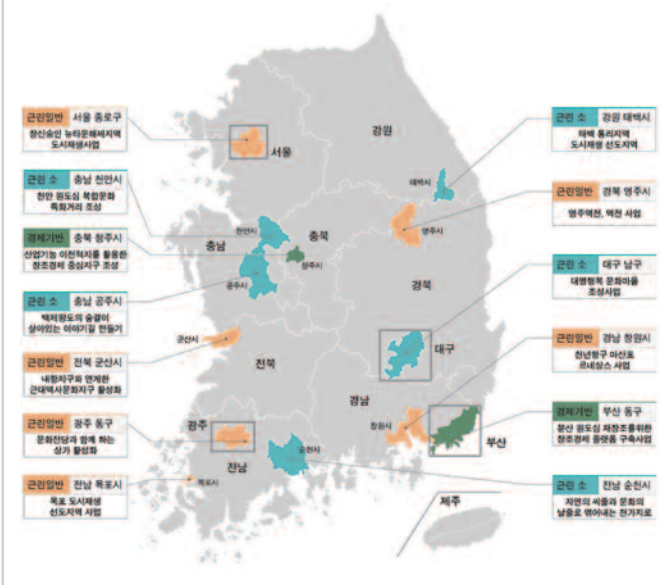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에 13개의 선도지역과 2016년에 33개의 일반지역을 선정하였다. 선도지역은 지방정부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지역은 지방정부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에, 전략계획을 토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의 쇠퇴지수를 근거로 재생 전략을 제시하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을 통해 선정된 활성화지역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의

미한다.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협력사업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을 세부사업으로 계획한다. 또한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방안 등을 만드는 것이 활성화계획이다. 이렇게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 수립된 사업 계획 또는 구상은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재생시키는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14~'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결과나 평가는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도심은 지금은 쇠퇴해 있지만 오랜 시간 전부터 지역의 구심점이 되었던 지역이다. 긴 세월 동안 커져이 쌓아온 지역의 역사를 비롯하여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었던 곳이기도 하고, 시장과 변화가 존재하여 상업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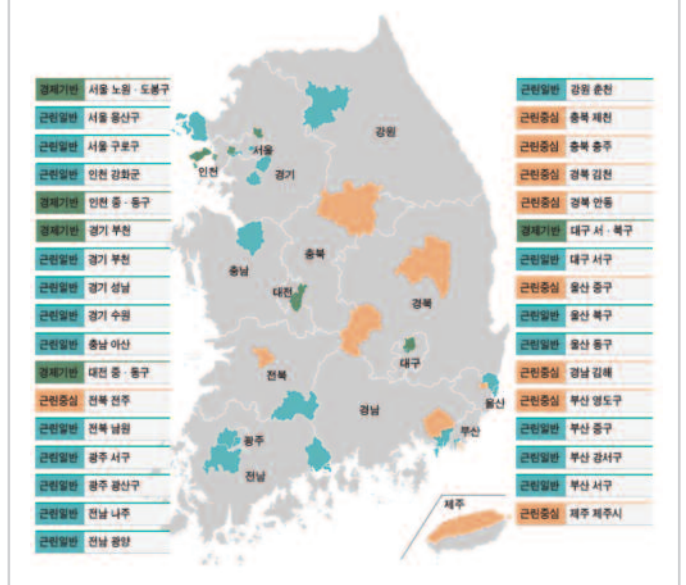
도시재생 선도지역

경제기반형(2), 근린재생형 일반규모(6), 근린재생형 소규모(5)



도시재생 일반지역

경제기반형(5),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9), 일반 근린재생형(19)



이기도 했던 지역이다. 다양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여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도 문화·예술·관광·역사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선도지역에서는 충북 청주, 충남 공주, 전북 군산 등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연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충북 청주는 공예 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문화예술의 거리 등 문화창작·전시·체험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공주는 백제 수도였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공산성과 무령왕릉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였다. 공산성과 무령왕릉 주변의 환경 정비를 통해 백제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 군산은 지역에 존재하는 근대역사문화건축물을 중심으로 개성 있는 원도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일반지역도 일반근린재생지역에서 문화·예술·관광·역사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역사문화 관광형 중심시가지 일반지역은 경북 안동, 전북 전주, 제주도 제주, 경남 김해 등이 있다. 경북 안동은 태사묘,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 창조산업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전북 전주는 전주부성, 원도심 특화거리를 연계하여 전통시장 문화거점 기능 강화, 도심관광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는 역사문화자산 복원 및 관광자원화 등 지역 정체성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계획하였다. 경남 김해는 가야역사문화 보전과 병행한 거주환경 개선, 다문화

를 활용한 관광기반을 조성하였다.

문화예술 공간 조성형 근린재생 일반지역으로 서울 용산구와 충남 아산이 있다. 서울 용산구는 강남권과의 양호한 접근성과 남산 자연자원, 해방촌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녹색문화마을 조성을 계획하였다. 충남 아산은 장항선 모산역 이전부지에 어린이 체험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변 신도시 지역의 문화·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역사문화 관광형 근린재생형 일반지역으로는 인천 강화군, 경기 수원, 전북 남원, 전남 나주, 전남 광양, 울산 동구 등이 존재한다. 인천 강화군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역사적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테마 가로·시장 개선 등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수원은 화성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성곽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린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전북 남원은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한 관광루트 정비, 전통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였다. 전남 나주는 나주읍성을 복원, 한옥 등을 정비하여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 역사문화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전남 광양은 광양읍성 복원 및 한옥마을 조성을 통한 전통적인 경관 조성, 빈 공터에 도시 숲 조성 등을 계획하였다. 울산 동구는 방어진항과 대왕암 등 관광거점을 정비하고 음식점 등 상가를 특화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중에 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한계 및 방향

도시재생사업이 계획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역사 등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상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사업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은 제한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은 자원이 갖는 가치에 비해 정책

활용성이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지역 자원들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채널이 부족하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자원의 환경 정비,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축제 운영 등과 같이 기존의 사업을 정비하거나 수정·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 예술과 지역사업의 접목 등의 다각도 활용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문화와 예술 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역사자원 활용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광객 유입과 원도심 활성화, 지역 경제 부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성과 정책이 부족하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감성 향상, 지역 정체성 확립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대부분 지역 축제나 플리마켓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 대한 애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지역자원을 계승하고, 현재의 지역자원을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은 필수적이다. 또한 모든 지역들은 각자의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개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와 노력 또한 필요하다. 낙후된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잠재적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도 중요하다.

일요일 저녁 '무근성길'

활기찬 월요일 아침 '제주북초등학교'

우리 일상의 기록

2017.5.21
일요일
무근성길

18:57

- 무근성길 골목 안 가게 간판들의 불이 하나, 둘 켜지고 있음
- 세탁소 앞 아주머니 두 분이 날씨가 더워 졌다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19:01

-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다 만난 텅 빈 태평목욕탕이 더욱 으스스해 보임



07:57

- 출근하는 교장 선생님과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가 보임



2017.5.22
월요일
북초등학교

19:54

- 해가 완전히 지자 무근성길의 분위기가 달라짐



08:00

- 문을 활짝 연 우체국 물류센터 앞을 요구르트 아줌마가 전동카트를 타고 지나감



08:12

- 북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등교하다 만난 친구들과 인사 나누는 밝은 표정의 아이들이 보임



08:34

-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나온 선생님과 아이들은 운동장의 쓰레기를 줍고 있음
- 그것도 잠시 이내 운동장을 달리는 아이들



19:09



- 킥보드 타느라 신난 아이와 차 조심하라고 외치며 따라가는 아빠가 보임



19:14



- 골목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은 빈점포와 빈집들이 눈에 띄



19:23



- 제주목 관아 주변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쓰레기를 치우고 계심



19:35



- 강아지와 산책 나온 여학생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감
- 북초등학교 안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짐



19:31



- 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비눗방울 놀이 하는 아빠와 아들이 보임
- 운동장 정글짐 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활기차 보임



19:26



- 제주목 관아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임
-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고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보임
- 양손 가득 쇼핑한 외국인 관광객 여성들이 밝은 표정으로 지나감



08:42



- 학교 앞에는 교통지도 봉사하는 시니어클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행자들을 돕고 있음



08:50



- 수업을 준비하는지 교구를 들고 이동하는 아이들과 뒤따라 들어가는 아이들이 보임



08:52



- 엄마와 인사하며 어린이집 차량에 올라타는 아이들이 보임
- 동네 구멍가게도 장사 준비를 마치고 문을 활짝 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은 민주주의”

공익을 위한 양보와 배려가 필요

“도시재생이 제일 처음 시작된 영국은 그 역사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도시재생 역사는 10년이 채 안 됐죠.

성공이나 실패나 결과보다 과정을 통한 경험 축적이 중요합니다.”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박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5월 11일~12일 양일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17 도시재생 공감포럼’을 개최했다.

전국 15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진과 도시재생지원기구, 국토부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60여 명과 제주도민이 함께 모여 제주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해 함께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적 정체성을 갖춰야

11일에는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진들이 모여 주민과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지역인 창원시와 선도지역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중인 전주시에 사례를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시재생, 시행착오를 공감으로

12일 진행한 ‘도시재생 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한 주민은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실패 선례가 무수히 많은데 왜 자꾸 실패하냐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정후 박사는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벤치마킹의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백지 상태에선 할 수 없으니까 도시의 규모, 인구수, 쇠퇴도 등이 비슷한 지역의 도시재생 방식을 벤치마킹한다”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공동체 등 지역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준 수석연구원도 시행착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성실한 실패’라는 말을 꺼냈다. 이 연구원은

“마중물 사업은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며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잘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제주의 경우, 관덕정 광장 사업 등 활성화계획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빨리 겪은 게 오히려 잘 됐다”며 “이제부터 시행착오를 공감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행정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창신승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유림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코디는 “도시재생에 대한 입장은 주민, 상인, 행정 등 각자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주민과 행정, 전문가 등이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중

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박하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은 정답이 없다.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이 있다.”며 “제주도도 관덕정 광장 사업 사례를 실패로 보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한 명에게라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52 vs 반대 48

이밖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다양한 조언과 지적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경험과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수가 공감하는 민주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공익을 위한 양보와 배려도 필요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면서 서

로의 생각을 좁혀가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과정이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2017 도시재생 공감포럼’을 주최한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승택 센터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국 도시재생지역 사업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전국적인 도시재생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로 도시를 편집하다

제2회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도시재생전문가 한자리에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2회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문화정상회의에 도시재생전문가도 한자리에 모였다. UCLG(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국, 100여 개 도시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지방정부가 직면한 문화권리, 문화유산·다양성·창의성, 문화와 교육, 도시재생 등의 문제를 공존과 다양성의 가치, 새로운 문화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한국세션4는 ‘문화콘텐츠로 도시를 편집하다’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에서 수행되고 있는 문화적 노력과 방법을 논의했다.

주민들이 직접 특성화 지도를 만든다

원도심 커뮤니티매핑 워크숍

주민들이 직접 특성화된 지도를 만드는 커뮤니티 매핑이 원도심에서도 시작된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5월 13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자산을 찾아서 축적하는 커뮤니티매핑 워크숍을 진행했다.

커뮤니티매핑은 온라인 지도가 제공하는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의 정보 공유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특성화된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Mappler(매플러)’라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워크숍은 커뮤니티매핑 전문가인 임완수 박사(미국 럿거스 대학 교수)의 교육 후 현장으로 나가 원도심 내 자원과 현황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을 찍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Mappler(매플러)’에 등록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들은 “커뮤니티매핑을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다”며 “내가 살던 곳이었지만 자세히 둘러볼 기회는 없었다.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가 기획하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 4개 진행

우리 지역 자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모임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지난 4개월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7년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총 4개 주민제안 사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 사업은 ▲성짓골 및 목관아 물허벅 짚어 메고 탐방사업(무근성마을 주민협의체) ▲함께 모여 '손심영 고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멘도룽포돗 주민협의체) ▲이도1동 문화지도만들기 사업(이도1동 도시재생협의체) ▲셋물골 활성화를 위한 마을 조사 및 일본 NPO 교류 사업(셋물골 주민협의체)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각 사업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되며 올해 11

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승택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제주시 원도심 관덕로 상가 방문



지난 4월 26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시 원도심을 찾았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마중물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관덕로 상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였다.

삼화종합철물 이병호 씨, 김판규 외과의원 김판규 씨, 승진유통 이상훈

씨 등 상점가 14곳을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를 나누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일찍 찾아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공동체의 힘, 함께 해봅시다!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개강

2017-1학기 제주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 과정이 끝났다. 다음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5월 31일부터 공통이론 과정을 통해 건축, 문화, 사회, 역사, 사회적경제 등과 연계하여 진행했던 도시재생 이론 교육을 수료한 주민 20명이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한다.

문제 해결 과정은 총 8주 8회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민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 자원 및 문제를 발굴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 기획해 보는 형태로 진행한다.

교육 주제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지역경제 활성화 등 2팀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승택 센터장은 “이론교육·현장실습·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